

안산시-비비큐, 고용일자리창출새로운 모델 만든다... '500억 투자유치'

청년 창업·다문화특구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안산시가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치킨 브랜드 1위 기업인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제너시스비비큐와 '청년·다문화가정 창업지원과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정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창업지원 및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와 제너시스비비큐는 협약에 따라 청년 및 다문화가정 창업에 육성 지원 다문화특구 활성화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각종 지원 창업 희망 청년 및 다문화가정 추천 등 취약계층 창업지원 및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세부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안산시가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제너시스비

비큐는 창업에 필요한 시설·교육, 인프라, 운영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너시스비비큐는 5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안산시 청년 및 다문화가정의 매장 창업 지원은 물론,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복합문화공간 건립도 지원하는 등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복합문화공간은 외부 관광객 유입을 높이고 다문화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도록 추진되며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시설 규모 등은 시와 제너시스비비큐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치킨대학을 설립한 제너시스비비큐는 창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며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다문화특구 활성화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장은 "높은 대



중적 인지도를 가진 제너시스비비큐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범기업으로 이번 협력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손잡고 고용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청년과 다문화가정이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영양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영양군은 남성·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영양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했다. 영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영양군과 안동소방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관내 기관 단체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방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유공자표창 등 기념식과 소방기술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소방안전에 힘쓰는 의용소방대원 2명이 영양군수 표창을, 영양군 여성소방대 연합회 김화순 대장이 전국의 의용소방대연합회 표창을 수상했으며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인 김경호씨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열린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팀을 나눠 400m 소화기 계주,

소방호스볼링 등 3개 종목으로 경기를 펼쳤다.

당초 이번 행사는 영양군 관내 8개 의용소방대가 연합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자별로 분산 실시해 11월 12일 석보의용소방대를 시작으로 11일 일월의용소방대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또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에도 철저를 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방의 날 축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애함심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항상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지킴이로서 영양군 소방안전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최만식/기자

남원 아막성에서 신라대형 집수시설 발견

고고학으로 아막성 실체 확인

남원시는 17일 전북도와 함께 남원 아막성 발굴조사에 대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아막성은 봉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에 위치한 퇴비식 석축 산성으로 둘레 640m로 전북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고대 산성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삼국사기'백제 무왕 3년과 무왕 17년에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아막성은 20여 년 간 철산지인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던 역사적 장소로서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그간 문헌사적으로 추정되었던 아막성 실체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집수지 1기와 도수로 목주열의 길이 9.5m, 너비 7.1m, 최대깊이 2.5m로 전북지역 최대급에 해당한다.

집수지 주변으로는 외부에 이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수로가 폭 50cm 내외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도수로 일대에는 집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목주열이 9기 확인됐다.

집수시설의 내부에서는 삼국~나말여초기에 이루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유물은 6세기 중반~7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신라 토기로 아막성의 축조·운영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줬는데, 기록상 등장하는 아막성의 운영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 중 철 원료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손잡이는 남원칠기 문화의 전통과 역사성을 복원할 수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목제 유물과 동물 유체가 상당수 출토됐다. 목제 유물의 경우, 글씨가 새겨진 목간과 목검이 출토되어 주목을 끈다. 동물 유체는 곰, 말, 소, 자라 등이 확인되어 당시 군사들의 생활방식은 물론, 식생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곰 유체의 경우, 신라 월성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삼국사기'기록에 신라인들이 곰의 가죽



으로 장군 깃발을 만들었다는 기록에 등장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집수시설 내부에서 확인된 목간에 적혀 있는 글자를 판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외선 촬영 등을 시행하고 학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아막성 목간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과학적 분

석방법을 통해 아막성의 절대연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예술과장은 "금번 발굴조사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아막성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로 보고 추가 발굴 및 국가 지정 문화재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2020 사회적 가치·혁신경영 시민 아이디어 & 콘텐츠 공모전

공모대상: 2020 사회적 가치·혁신경영 시민 아이디어 & 콘텐츠 공모전

공모기간: 2020. 11. 11 (수) ~ 12. 1. (화) 18:00 (다중)

공모분야: 혁신경영 / 시민 아이디어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남원시청 기획경제팀 (www.yyg.or.kr) / 031-828-9825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볼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벌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따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 · 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 피부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19m 영양수박 · 비타린 단단 영양고랭지채소 · 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곡 · 맑은기린 영양일뽕

경기도의회 김판수 위원장,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

공장별 안전관리자 통한 시설별 초기 대응 역량 강화와 비닐하우스, 산업폐기물 공장, 농업 시설 등 지역 현황에 따른 화재 대응 방안 마련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화성, 과천시 방서와 13일 파주, 김포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화성소방서에서 “관할 지역 내 공장이 약 9천여개인 데 동절기에는 특히 화재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각 시설마다 화재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이들에게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과천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내 거주용 비닐하우스가 100여동이 넘는다”며 “동절기에는 전열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소화기 배포, 소형 펌프차량 배치 등을 통해 화재 예방과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파주소방서에서는 “동일한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등 도시 개발과 함께, 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공장 등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인만큼 화재 유형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11개 소방서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6일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찬/기자



권정선 의원, 공무원 불친절 근절 등 교육청 적극행정 주문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의 보호방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한 운영,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의 공무원 불친절 문제,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직원의 치유대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경기교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연간 처리 규모가 18년 8건, 19년 13건, 올해는 10건에 불과해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답변에서 이흥영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법률 지원과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제보자는 큰 결심을 하고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만큼 신분 보장 등 철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면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30개의 부서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담당공무원에게는 하지 않아도 될 잡무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불친절하게 응대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서 “에듀콜센터 직원들이 연간 10만 건이 넘는 통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 민원성 전화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분들이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답변에서 김

선태 총무과장은 “인원 증원을 포함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엘로카펫 설치 등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답변에서 윤 효 행정국장은 “스쿨존 자체가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엘로카펫 설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 2020’ 개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정책 전반을 짚어보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18일 상암 JTBC홀에서 ‘디파인2020’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디파인이란 블록체인의 핵심 Decentralized의 ‘D’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는 의미의 Define의 ‘Fine’의 합성어로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AI, 핀테크 등을 다루는 ‘글로벌 컨퍼런스’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을 이끌고 있는 관계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도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첫째 날인 17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블록체인 금융과 정책을 위주로 각 연사들이 토론을 나서며 둘째 날에는 상암 JTBC 홀에서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이 생태계 미래에 대해 언급한다.김병욱 의원은 “이번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정책 전반을 짚어 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에 참석해 주시고 깊이 있는 토론도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산업 관련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D.Fine 2020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관해서도 다루는 만큼, 이 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지 제도의 운영과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블록체인 산업 설계를 위한 진지하고 의미 있는 고민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0

대 국회에서 통과된 뒤 11월 3일 시행세칙이 발표된 ‘특금법’,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입법을 주도해온 저로서는 앞으로 이 법안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성숙한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김병욱 의원실과 조인디, 코인테크코리아, 디센터, 블록미디어 등 메이저 4개 미디어 그룹이 공동 주최하고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헤시드가 협력사로 나선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해외 연사는 컨퍼런스 현장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연사와 강연내용 등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온오프믹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사전 등록은 마감됐다.디파인 2020 컨퍼런스 전체 세션은 조인디 유튜브 공식채널 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최광수/기자

박기열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3일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0년 5월 이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태적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는 현행 ‘기반시설관리조례’로 대체되어 폐지됐지만, ‘기반시설관리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실태평가보고서는 ‘19.12.31일까지 작성도록 되어있고 종합관리계획은 실태평가보고서



어떻게 활용됐으며 추가/보완된 사항은 무엇인지? ‘종합관리계획’ 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어떻게 활용됐으며 추가/보완된 사항은 무엇이나’고 물었고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은 “조례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이 2020년 6월까지 수립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이 급년 초에 시달렸고 급년 10월까지 작성을 완료한 상태로 국

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는 완료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조례에 2020년 6월까지 준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연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부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경.가5007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내선 (114) 오피니언 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평택 지세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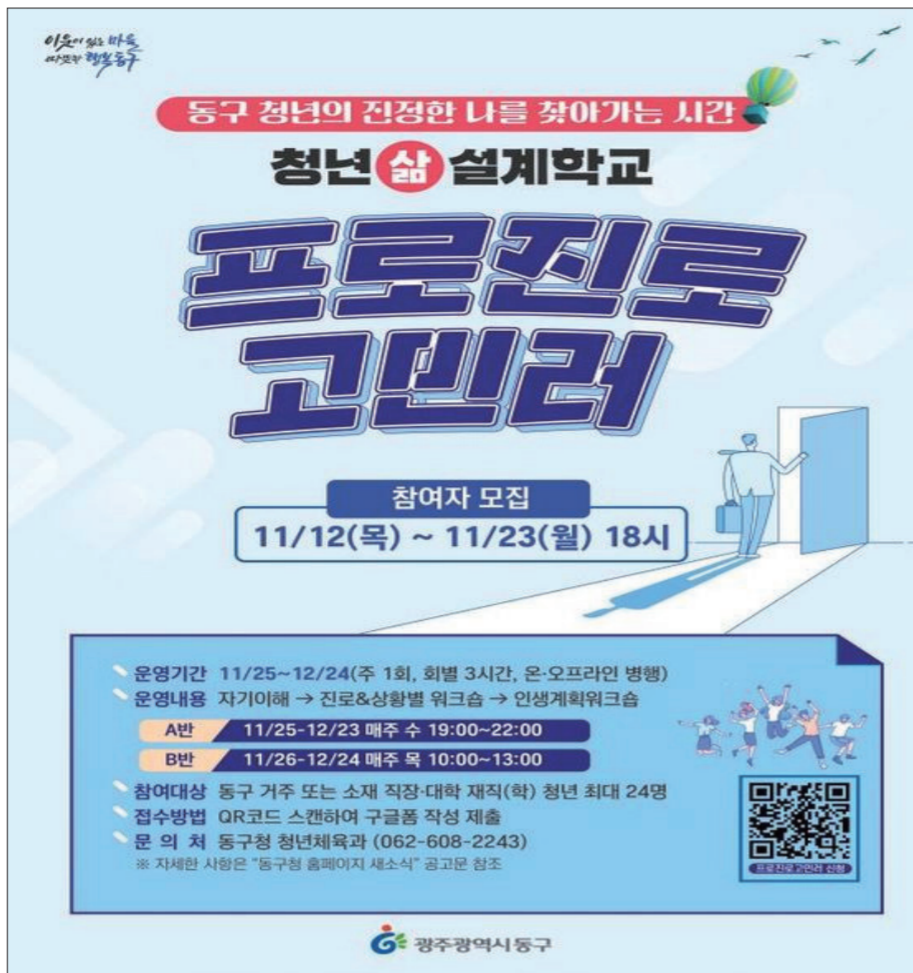
“청년 인생 설계 함께 고민해요”

23일까지 참여자 모집...온·오프라인 방식 운영

광주 동구가 청년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구 청년 삶 설계학교, 프로진로 고민러’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분야 2호 사업으로 인생 전환기를 맞은 청년들이 ‘나’에 대한 탐색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5주간 오후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나만의 적성과 라이프 스타일 발견하기 나만의 가치관과 업무환경 스타일 발견하기 나만의 강점 분석 및 기준점 세우기 등 3주차의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통해 나만의 강점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4주차에는 나의 진로고민 유형에 맞는 ‘선택 워크숍’을 거친 후, 5주차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인생 계획 수립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모집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참여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관내 직장내 재직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조



청년 삶 설계학교
프로진로 고민러

참여자 모집
11/12(목) ~ 11/23(월) 18시

- 운영기간 11/25~12/24(주 1회, 회별 3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 운영내용 자기이해 → 진로&상황별 워크숍 → 인생계획워크숍
- 반반 11/25-12/23 매주 수 19:00-22:00
- 반반 11/26-12/24 매주 목 10:00-13:00
- 참여대상 동구 거주 또는 소재 직장·대학 재직(학) 청년 최대 24명
- 접수방법 QR코드 스캔하여 구글폼 작성 제출
- 문의처 동구청 청년체육과 (062-608-2243)
- ※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

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입택 동구청장은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일 것”이며 “이번 프

젝트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2020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 탄생

선수들 각축 속에 자전거 타기 좋은 아름다운 무주 홍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적산면, 부남면 일원에서 펼쳐졌던 2020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대회가 실력 있는 선수들의 각축전으로 명성을 드높이며 15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우승은 CELLO 로켓 N 고종석 선수가 차지했으며 2위에는 팀머신 바이크스타일 SCOTT 류금찬 선수, 3위에는 A.ONE Racing Team1 홍지섭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십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세계사이클연맹과 대한자전거연맹 규정에 의해 개최되는 공식 동호인 경기로서 15일 3일차 경기에서는 총 참여자 232명 중 1, 2일차 경기에서 우열을 가려 올라온 119명이 최종 페달을 밟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 구간은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용포리, 등나무운동장에서 오산리까지 무주읍과 적산면, 부남면을 아우르는 2개 구간이었으며 13일에는 232명이 등나무운동장을 출발해 대차리 강변도로와 방이리, 삼유리, 장안리, 가당리, 용포리 구간을 1번 달렸다.

14일에는 1차에서 선발된 선수 147명이 같은 구간을 2번 달렸으며 15일에는 119명이 등나무운동장에서 수리재터널, 내도리, 오산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4번 달려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대한자전거연맹 관계자는 “전국의 우수 사이클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각축전을 벌였다”며 “무



주 가 워낙 자전거 타기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간 큰 대회들도 다수 치러져 기대가 컸는데 선수들 실력은 물론이고 날씨나 도로사정, 경관 등 모든 게 최상의 기대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가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회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삼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구간에 대한 교통지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수들을 비롯한 방문자발 열체크와 손 소독, 명부 작성을 지원

했다.또 식당 및 숙박, 카페 등지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와 이동화장실 등 편의시설, 행사장 주변 소독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3일간의 대회로 무주군에 들어온 인원이 1천 1백여명 정도가 된다”며 “단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무주를 전국에 알릴 기회로 대회 유치는 물론, 자전거 동호인들을 무주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정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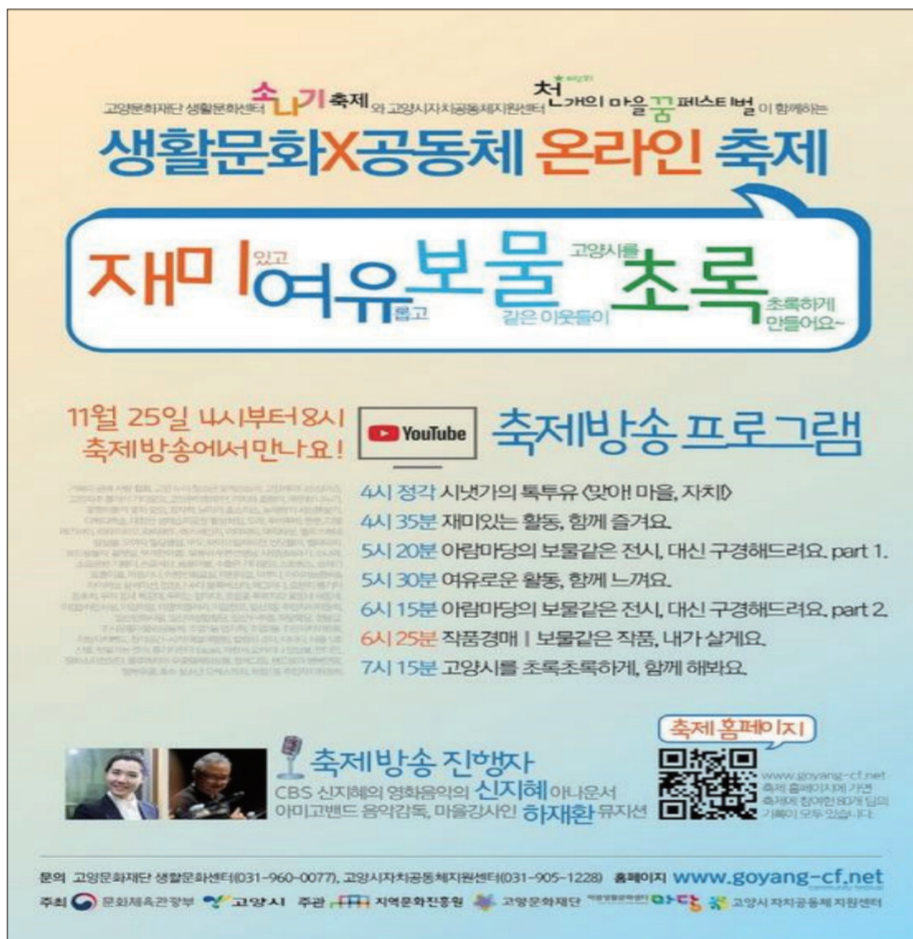
‘2020 고양시 생활문화X공동체 온라인 축제’ 개최

고양시 생활문화동호회축제, 올해는 온라인으로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고양 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이 ‘2020 고양시 생활문화X공동체 온라인 축제’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고양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고양생활문화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고양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20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고양 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은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인 ‘소·나·기 축제’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왔다.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쌍방향의 온라인으로 전개되며 4가지 주제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온라인 축제인 만큼 고양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 80팀의 공연, 전시, 활약상 등을 담은 발표 영상을 제작해 코로나 시대에도 이들이 갖고 담은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 영상들은 축제 당일인 25일부터 ‘2020 고양시 생활문화X공동체 온라인 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 중 일부를 선별해 ‘2020 고양시 생활문화X공동체 온라인 축제’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송출한다. 25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유튜브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CBS 신지혜 아나운서와 고양시 마을강사 이재환 유



생활문화X공동체 온라인 축제

재미 | 있고 | 여유 | 보물 | 초록

11월 25일 14시부터 8시 축제방송에서 만나요!

축제공정 프로그램

- 4시 정각 사뭇기의 특유 유익한 마을, 지체
- 4시 35분 재미있는 활동, 함께 즐겨요
- 5시 20분 아람마당의 보물같은 전시, 대신 구경해드려요, part 1.
- 5시 30분 여유로운 활동, 함께 느껴요.
- 6시 15분 아람마당의 보물같은 전시, 대신 구경해드려요, part 2.
- 6시 25분 작품경매 | 보물같은 작품, 내가 살게요.
- 7시 15분 고양시를 초록초록하게, 함께 하러요.

축제공정진행자

CBS 신지혜의 영화와 음악의 신지혜 아나운서, 이이강연대 음악감독, 마을강사인 이재환 유무선

www.goyang-cf.net

지혜가 공동으로 진행을 맡는다.특히 동호회 발표 영상 제공 뿐만 아니라 마을포럼 및 생활문화경매도 실시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정재철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고양 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을 중심으로 지속되던 소·나·기 축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협업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록 대면 축제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온라인의 장점을 잘 살려 알찬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김영근/기자

도봉구, 오는 18일 ‘주민인권학교 개강’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총 4회차 강의

도봉구는 오는 18일부터 지역사회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인권분야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8기 도봉구 주민인권학교’를 개강한다.이번 특강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봉구청 은행나무방에서 진행된다.

구는 인권일반, 어르신·아동·여성 인권 등 4가지 주제로 최근 인권이슈에 초점을 맞춘 질 높은 강연을 준비했다.강의 첫날인 18일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총장이 ‘제1강 나와 이웃을 행복으로 이끄는 인권’을 주제로 인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25일에는 조혜옥 인권활동가가 ‘제2강 노인, 시민으로 살기’를 주제로 어르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본다.

12월 2일에는 홍의표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이 ‘제3강 코로나와 어린이 인권’을 주제로 아동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12월 9일에는 이호연 인권활동가가 ‘제4강 여성인권에 세상 읽기를 주제로 여성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주민인권학교는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의 ‘참여·인터넷 접수/설문’에서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하면 된다.



제8기 도봉구 주민인권학교

모집개요

교육기간 : 2020. 11. 18. ~ 2020. 12. 9. 16시~18시 (매주 수요일, 총 4회차)
모집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도봉구민 누구나(선착순 40명)
교육장소 : 도봉구청 은행나무방(지하1층)
신청방법 : 도봉구청 홈페이지(참여·인터넷접수) 또는 전화(02-2091-2073)

일 자	강의내용	강 사
11.18.(수)	나와 이웃을 행복으로 이끄는 인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11.25.(수)	노년, 시민으로 살기	조혜옥 (인권교육센터 ‘별’ 상임활동가)
12. 2.(수)	코로나와 어린이 인권	홍의표 (도봉구인권위원회 위원, 도봉초등학교 교사)
12. 9.(수)	여성인권으로 세상 읽기 - 나는 어디를? 그리고 어디로?	이호연 (인권교육센터 ‘별’ 상임활동가)

문의 | 도봉구청 감사담당관(02-2091-2073)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주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주민인권학교를 통해 생활 속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에서도 다양한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남소방본부, 올해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전국 1위’

코로나19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각본 현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논문으로 대체

경남 소방본부가 소방청에서 주관한 ‘2020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와 유관기관 간 공조로 구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각본 및 현 재난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논문으로 대체돼 진행됐다.경남소방본부는 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원인미상의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사상자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와 섬이 많은 경남의 지역적 특



성에 맞는 ‘도서지역 재난현장 자립형 응급의료 대응 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허석곤 도 소방본부장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재난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

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구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최상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용/기자

전통시장페이백 행사 열려

단체·시설, 주민 대상...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대회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페이백 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 상품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참여자는 식재료,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등 단체·시설은 29일까지 구로·남구로·가리봉시장에서 주민들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구로·남구로·가리

봉·고척근린시장·고척골목상점가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23일부터 27일까지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대회도 열린다. 관내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구로·가리봉시장에서 펼쳐진다.20일까지 선착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무지 에코백, 아크릴 볼갑 또는 패브리카 등이 지급된다.

에코백 완성작 제출자에게는 시장체험 상품권이, 수상자에게는 다음달 7일 발표 후 상장과 시장체험 상품권이 제공된다.

김미성/기자



제1회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대상 : 구로시장·가리봉시장
대상자 : 2020년 11월 23일(수)~2020년 11월 27일(일) 11:00~17:00

대상 : 구로·남구로·가리봉시장
대상자 : 2020년 11월 23일(수)~2020년 11월 27일(일) 11:00~17:00

대상 : 구로·남구로·가리봉시장
대상자 : 2020년 11월 23일(수)~2020년 11월 27일(일) 11:00~17:00

대상 : 구로·남구로·가리봉시장
대상자 : 2020년 11월 23일(수)~2020년 11월 27일(일) 11:00~17:00

창원시, 음식점 식문화 개선 이행 실태조사 펼쳐

창원시는 지난 12일부터 영업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문화 개선 이행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국음식점, 치킨업소 등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 지원과 전통시장 횡집을 대상으로 위생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늘어나는 혼밥족을 위한 혼밥 식기 세트 및 음식 포장 용기, 푸드백을 우수업소에 지원하는 등 음식이 낭비되거나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음식점 내 생활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덜어먹기' 실천을 위한 소형점시, 국자, 집게 등을



지원하고 실천 권고를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는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류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실천 여부를 조사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이

성립 보건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위해 수저 포장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영업주 스스로 적극적인 개선 실천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충북도, 김장철 성수식품 정기단속 및 제도 추진

√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로 소비활동 활성화 및 바른 먹거리 구현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철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바른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불법행위 근절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제조 및 판매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한다.중점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등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 자가품질검사 이행

부, 농·임·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허위표시 등이다.필요 시 기준·규격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제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불법지주간판, "이제 그만"

2021년 사업비 5000만원 들여 10개소 추가 설치 추진

춘천시정부가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간판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시정부는 도비 2,000만원을 투입해 불법간판 난립지역 4개소에 통합 지주간판을 이달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으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등 민원 상시 발생에 따른 조치다.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난립한 지주간판에 대해 읍면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통합지주형

간판 수요조사를 했다.

이후 지난 8월 통합지주형 간판 현장 여건을 조사했으며 창촌2·3리, 산수2리, 사암2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통합지주형 간판 설치에 앞서 주민들은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지주간판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중이다.

내년에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통합 지주간판 설치 지역을 1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통합지주간판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갈 곳 줄어든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옛 서울 한양도성 내 운행제한 제도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연중 시행하고 있어 5등급 차량 운행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적발 시 1회에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남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덕기 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광역권별 시행계획에 따라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상시 단속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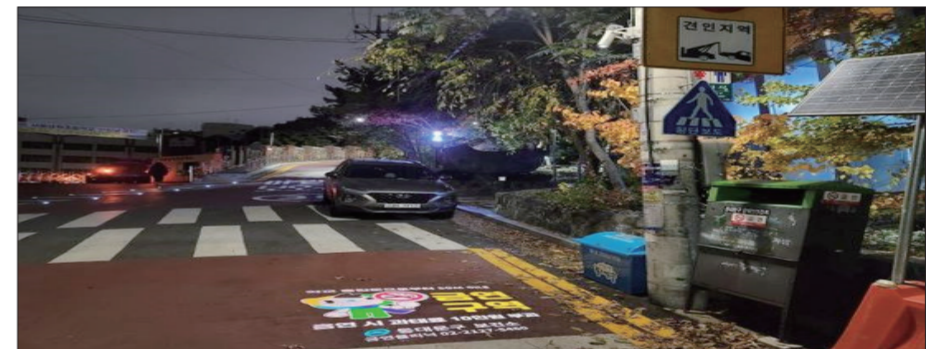
송인용/기자



동대문구, 학교 통학로 20곳에 금연구역 알리는 고보조명 설치

동대문구는 관내 학교 통학로 20곳에 야간에도 금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고보조명을 설치했다.구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 대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절대보호구역 위주로 고보조명을 설치해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학교 주변의 금연 환경을 더욱 강력하게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에 설치된 고보조명은 '학교 통학로에서 금연하는 당신 멋져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금연구역', '학교 통학



로에서는 언제나 금연이다' 등의 문구를 담고 있다.

구는 지속적으로 이미지 필름 교체 해 금연과 관련한 다양한 문구와 그림을 변경·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고보조명 설치로 학

교 통학로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안성시, '2020 안성맞춤 JOB 페스티벌' 연다

5일 동안 안성시민 행복 일자리 개최

안성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안성고용복지+센터와 공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0 안성맞춤 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 안성맞춤 JOB 페스티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참여자 제한을 두고자 안성고용복지+센터와 공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5일 동안 릴레이 대면면접이 이루어지며 사전에 면접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확인해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기업은 케이엔터블유, 제이푸드서비스, 청춘노인재활복지센터, 하나케미컬, 포켄스, 예스푸드, 케이엠비, 우진매대, 주식회사 담, 더기반, 한살림, 신아메드, 아웃이보호작업장, 케이다, 네때, 안스비앤씨, 쿠팡물류센터, 테라엔지니어링, 행복그린넷, 래디스 플러스 등 총 20개의 안성지역 업체이다.

제조업부터 물류, 판매, 서비스, 복지 등 다양한 직무에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또는 안성일자리센터 블로그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현장면접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직업심리검사, 인·적성검사, MBTI성격검사, 취업타로 프로파일 사진, 이력서컨설팅, 퍼스널컬러진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장 출입 전 체온을 체크하며 행사장 소독, 면접장 침방울 차단용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방역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안성관내 구직자의 취업 및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

11/18-19 국방 법률안 심사 앞두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사 전달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6일 월요일 11시 국회에서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났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는 면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임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밖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한가지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김남주기자



'제2회 인천굿디자인'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최종 선정

3년 동안 인증사용권한 부여,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

인천광역시시는 16일 '제2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의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총 73점이 접수되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를 통해 9종 26점이 최종 선정됐고 이 중 인천소재 3개 업체에서 5점이 선정됐다. 인천소재 탈락업체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인천디자인클리닉을 통해 무상으로 디자인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2개 업체가 디자인클리닉을 지원받고 있다. 2020년도 인증 품목에는 가로등, 자전거도로펜스, 불라드,

보행자펜스, 보안등, 벤치, 방음벽, 교량용펜스, 가로수보호덮개가 선정됐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은 3년 동안 인증사용권한을 부여받고 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사업 적용 권장,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전국 지자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얻는다.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1인 벤치, 스마트친환경 가로시설물 등으로 인증범위를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우수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고양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종합정보 가이드북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생활' 배포

고양시는 이달 초 임신·출산·양육 가정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담은 종합정보 가이드북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생활'을 제작,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생활'에는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양시 임신·출산·양육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이 실려 있다. 특히 출산 전·후 및 다자녀가정 여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나뉘어 정리되어 있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생활' 가이드북은 고양시 39개 동 행정복지센터, 3개 보건소, 17개 도서관 등에서 고양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고양양식-새소식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포된 가이드북은 아이를 임신·출산·양육하는 가정이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의왕시, 온라인 장애인 취업콘서트 '희망드림' 개최

11월 18일 오후 3시부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유튜브 방송 진행

의왕시는 오는 18일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장애인을 위한 '희망드림' 온라인 장애인 취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장애인 취업콘서트 '희망드림'은 정보소외 구직장애인에게 고용, 교육, 훈련 등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토크쇼를 진행해 구직장애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준비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장애인 취업콘서트는 18일 오후 3시부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의왕시 공공일자리 사업소개, 2부는 민간사업체 취업정보 제공, 3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취업문제 관련 토크쇼로 진행된다. 행사종료후에도 1:1 맞춤형 취업알선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구직장애인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이번 온라인 취업콘서트를 통해 장애인분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찬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은평문화재단, '은평 예술교육 콘텐츠 박람회' 개최

은평문화재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은평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은평 예술교육 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은평문화재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Cheer up 예술교육 콘텐츠연구 프로젝트' 기획해 예술교육을 주제로 과정중심의 새로운 시도와 고민을 풀어놓는 예술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그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이며 21명 연구자가 참여해 온라인 시대에 맞는 예술교육 연구, 지역문화의 원형을 담은 예술교육 연구 등 폭넓은 예술교육 콘텐츠를 발굴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 넘치는 은평의 색깔이 돋보인다. 톡톡 튀는 연구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한 이번 박람회는 예술교육 콘텐츠 및 주제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기획됐다. 연구과정을 인포그래픽, 미디어, 연구노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한다. 각 시간 별로 연구자가 배치되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고 연구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악기 분해, 오토마타 기계 샘플, 고장난 스피커를 활용한 소리역사 등 연구활동에



제작한 오브제를 전시해 풍성한 볼거리를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역의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제작한 컬러링 북 칠하기, 온·오프라인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미술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관람객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술교육을 주제로한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예술교육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예약링크 또는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조상순/기자

서울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12.8까지 접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제로에너지 건물 관련 전문 단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제로에너지 건물'과 '전시·체험관'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에너지드림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는 에너지드림센터가 개관한 2012년 이래 4회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제5차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한다. 에너지드림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전시해설, 체험형 에너지·환경교육, 에코투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방문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로 개관 이래 현재까지 약 55만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 조치로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했다.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주요 위탁 사무는 에너지·기후 환경 분야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로에너지 건물 모니터링 및 시설 장비 유지보수, 에코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에너지·기후 환경 교육 및 전시관 운영, 제로에너지 건물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회 수립,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12.8.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서울시청 환경시민협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운영실적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단체의 경영상태,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12월 중 협약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에너지드림센터

를 위탁하게 된다. 현재 에너지드림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로 지난 달 14일부터 재개관했으며 인원을 제한해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각 층별 전시관 및 건물 특징 등은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제로에너지 건물과 환경교육 전시·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일상에서 만난 거리예술, 이제 영상으로 만나요"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오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순차적 공개

서울문화재단이 야외 공연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리예술 카라반'의 15개 작품을 올리는 영상으로 재구성해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거리예술 카라반'은 2014년부터 시민의 일상공간인 도심 속 광장, 공원 등에서 거리예술 공연을 선보여온 '거리예술 시즌제'의 새로운 이름이다.

당초 9~10월의 주말과 공휴일에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연극·현대무용·음악·마리오네트·이동형 공연·비보잉·밴드마임 등의 장르로 총 15편이다. 영상은 도시의 씬 색깔 일상 사람 기억 등 총 5가지 주제가며 예술가들이 수차례 회의와 답사를 거쳐 선유도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서 촬영했다. 주요 작품은 코로나 시대에 나타

난 다양한 인간상을 표현하는 '달걀 귀신' 성인을 위한 자장가를 연주하는 '숨, 자장가' 버려진 목각인형이 팔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초보 목수와 목각인형' 등이다. '2020 거리예술 카라반'은 영상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거리예술 공연을 다각도로 담았다. 기존에 거리예술 공연자 앞에 앉아 정면에서만 봐왔던 시민의 제한적인 시야를 보완하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영상 구독자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작품을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2020 거리예술 카라반'의 영상은 오는 18일 오후 6시에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팍TV'와 '네이버TV',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선보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3편씩 공개된다. 오는 12월 10일에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이번 '거리예술 카라반' 제작에 참여한 공연자와 스태프 등이 모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거리예술 공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창작활동이 멈추



지 않도록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물리적 공간 범위를 확대하고 시

민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전통시장 한마당 '장날 愛' 가는 날

13일과 14일 양일간 구청 열린뜰이 '시골장터'로 변신

강동구는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강동구청 열린뜰에서 2020년 강동구 전통시장 한마당 '장날 愛'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행사에는 강동구의 6개 모든 전통시장이 참여해 각 시장마다 대

표하는 물품인 청과류, 떡, 장류, 두부, 첫갈뽕을 팔았고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다문화상인도 참여해 다채로운 먹거리로 구성됐다. 특히 전통시장 특성에 맞게 시골 장터 분위기의 컨셉으로 꾸며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객석은 평상형으로 부스는 초가부스와 갈대부스로 조성했으며 야간조명도 알전구를 이용한 스트링라이트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주무대에는 깊어가는 가을과 어울리는 밴드와 싱어송라이터 공연 등 문화 공연 프로그램도 볼 수 있었다.

황규석/기자



대구 범어 마크서밋

경북도 추진 동해 대게 자원회복사업, 실질적 효과 발휘해

대게 자원회복 위해 대게 보육초 설치 어업인 70% 이상 사업효과 긍정

본격적인 대게 철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대게는 경북 동해안 300여척 어선의 주요 소득원으로 항포구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특산물 매장이 입점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수산물로서 국민기호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대게를 주제로 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 상품으로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은 총 144억원의 사업비로 영덕의 축산, 강구, 울진의 죽변, 후포 4개 해역에 대게 보육초를 설치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년 간 대게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해 제주대학교에 '대게 산란·서식장 경제성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어업인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게 어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게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 해역이 대게 자원량이 풍부하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53%가 종전에 비해 40%이상 자원량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대게 산란장을 조성한 후 소득이 증가했다는 어업인도 74%나 됐으며 대게 산란장 조성이 어업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대게 어획량 변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감소해 오던 경북 동해의 대게 생산량이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6년 최저인 1386톤을 기록한 이래 2017년 1626톤, 2018년 1768톤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731톤을 기록했다.

김해성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연합회장은 "경북도가 추진해 온 대게 보육초 투입은 대게의 산란과 서식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육초가

남획의 원인이 되는 자망어업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며 "앞으로 보육초 투하 사업을 영덕과 울진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대게 자원회복사업이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예산투입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호기자



김천시, 2020년 자원봉사 평가 '大賞' 수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뛰어 넘어 시민의 자발적 나눔문화 정착

김천시는 지난 13일 경상북도에 열린 "2020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자원봉사평가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실적을 분석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항목은 자원봉사 참여도, 자원봉사 활성화, 공무원 봉사활동 등 3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2~3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2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평가됐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마스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수제 면마스크 제작 및 기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

른 비대면 행복마을 나눔 봉사활동, 노인 복지 급식 배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도내 최고인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천시의 10월말 기준 자원봉사 참여 연인원은 22,862명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발적, 선도적인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활동도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2020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유공표창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 김천시지대 박태규 부지대장과 자원봉사거점상담봉사단 이춘자 봉사단원이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렸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은 15만 김천시민이 협력해 이룬 성과이며 인생에서 나눔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몸소 보여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를 뛰어 넘는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 문화는 앞으로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반식기자



청송군, 농업인 온라인판매 능력 배가 '앞장'



1인 방송으로 소비자와 접촉하라 라이브커머스 교육 실시

청송군은 지난 12일~13일 이틀간 정보화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스마트폰 1인 방송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농업인들도 다양한 온라인 판매에 대응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으며 방송

경력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강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1인 방송 실습을 해가며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농업인도 스마트기기 활용에 도태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크게 호응했다.

한편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정보화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감소농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스마트스

터,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판매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교육으로 1인 방송을 통한 농산물 판매의 길을 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방법을 배워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자라나는 암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 콘서트 시리즈Ⅲ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콘서트시리즈Ⅲ -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자라나는 암' 공연이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 콘서트 시리즈'는 코로나19로 한층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전문 의료 지식을 지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이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인 암에 대한 원인과 치료방법을 공연예술과 함께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와 아트가 결합해 전문 의료진과 예술인이 협업해 진행되는 보기 드문 문화예술활성화 기획 프로그램이다. 암질환의 발병 증상을 지역 연극단체 극단안동이 유니버시티 단막 연극으로 표현하고 국립암센터의 희귀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신상훈과 안동병원 외과 로봇수술센터장 한구용의 전문 의료지식을 전달 토크와 목판 양상블이 함께해 흥미진진한 공연을 진행한다. '현대인을 위한 미디어아트콘서트시리즈Ⅲ -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자라나는 암' 공연은 5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오전 원이다.

김영호기자



2020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 봉화군 3개 분야 수상

자원봉사대상 동상 영점천, 단체유공상 군여성자원봉사회, 개인유공상 강영란

봉화군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청 동라관에서 열린 '2020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봉화군이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에서는 봉화재단지킴이봉사단 엄경찬씨가 자원봉사대상 동상으로 선정됐고 단체유공상으로 봉화군여성자원봉사회, 개인유공상으로 봉화여성자율반

범대 강영란씨가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봉사대상의 동상을 수상한 엄경찬 씨는 1992년 명호자살방법대 입단을 시작으로 여러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재난재해 복구활동, 소외이웃 집수리 봉사 등 현재까지 4,30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해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왔다. 봉화여성자원봉사회는 지역축제에서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월 2회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지원뿐만 아니라 재가 청소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



고 있으며 강영란 씨는 2004년 자원봉사 시작으로 현재까지 708회, 2,900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우범지역 순찰, 재가 봉사, 방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상자 엄경찬씨는 "활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봉화군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송인용기자

겨울이 더 아름다운 대릉원 돌담 가로수길



정성 가득한 털옷을 입은 가로수 길에서 따뜻한 겨울 추억을...

대릉원 돌담길의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가로수들이 정성 가득한 예쁜 손뜨개 옷을 입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경주 손뜨개 모임인 '해피 크로셰'와 '뜨실라'의 회원 23명의 회원과 경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봄부터 정성스레 만들어 온 손뜨개 옷을 대릉원 후문 태

종로의 이팝나무와 돌담 옆 왕벚나무 가로수 126그루에 입혀 다가 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손뜨개 옷으로 한층 화사해진 가로수가 쓸쓸한 겨울 풍경에 다양한 색깔을 더해 거리에 활기를 불어 넣고 겨울철 찬바람으로 인한 수피피해 예방 등 가로수의 생육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나무들이 입은 겨울옷은 경주 손뜨개 회원들의 정성과 특

특 튀는 아이디어가 흠뻑 배어 있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최정식 도시공원과장은 "다양하고 재밌는 겨울옷을 입은 가로수 길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주를 위해 지난 봄부터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 준 '해피 크로셰'와 '뜨실라'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남도, 시군 연계협력사업 사업비 15억원 지원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진주-사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 등 12개 사업 선정

경상남도가 12개 시군의 연계협력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13일 개최한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시군 연계협력사업에는 도비 15억원과 시군비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창녕군에서 제안한 '습지와 철새 in 경남'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사업은 시군조정교부금 지급이 불가해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은 행정구역을 넘어 지리·문화적으로 인접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자원 공동관리, 지역 관광자원 연계, 시군 간 시설공유 등의 권역별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작년보다 전국 최초로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2019년 7개 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3개 시군에서 15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경남도 소관 부서의 검토와 경남연구원 자문을 거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연계협력사업을 선



정하게 됐다. 최종 선정된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진주-사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 불모산 전망쉼터 조성, 구 삼랑진군 자전거도로 정비, 밀양-양산간 울트라 M.T.B 코스 개발, 합강권 낙동강 3색길 조성, 부자기원 솔바위공원 조성, '습지와 철새 in 경남'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하늘·산·바다를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 길 조성, 향

매산 공감 여행 서비스 구축사업, 거합산 향노화산업 엑스포 전시, 합천-창녕 생태관광 브랜드 개발 사업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수도권 집중시대에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필수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남형 시군 간 연계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류석기자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수질항목 백과사전' 발간

부산시 수질항목 279종에 대한 모든 것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의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 수질항목 총 279종에 대한 '수질항목 백과사전'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백과사전은 B5 규격 총 343쪽에 먹는 물 수질 기준항목 60종 클로로페놀 등 환경부 감시항목 29종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자체감시항목 190종 등 총 279종에 대한 물질 특성, 수질 기준, 환경 중 존재, 분석방법, 처리방법 등의 상세한 수질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항목 중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수질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수질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사업소, 관공서 민원창구 등에 비치해 다양한 수질 정보를 언제든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전자



문서형태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산시의 체계적 수질 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백과사전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최신 수질항목 추가하고 기존 수질 항목을 보완하는 등 더욱 알찬 내용을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대한민국 대표과일 산청꽃감 만들기 한창

1300 농가 年2700t 생산...350억원 규모 소득

지리산 자락 산청군에서 대한민국 대표과일 '산청 고종시'로 만드는 '지리산 산청꽃감' 말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산청꽃감의 재료가 되는 '고종시'는 농식품부와 산림청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올해 봄 냉해와 더불어 긴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원료감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산청군은 타 지역에 비해 작황이 좋은 편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토타입'의 토양자료에 의하면 산청군은 사양토, 양토, 그리고 미사질양토가 98.2%를 차지한다. 이같은 토질은 산청꽃감의 원료감인 고종시 재배지로 최적지라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지리산의 맑고 차가운 날씨와 낮은 습도로 올해 산청꽃감의 품질은 어느때 보다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은 청정조건장과 제습기, 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와 이상기온 등



외부 환경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꽃감을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산청꽃감은 자연조건을 활용한 가공기술의 발달로 다른 꽃감에 비해 비타민 C의 함유량이 2배 이상 많아 겨울철 으름 간식으로 꼽힌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과 경남도 추천 QC 마크를 획득한 지역 특산품이며 꽃감분야에서는 최초로 2006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했다. 산청군에서는 매년 1300여 농가에서 2700여t의 꽃감을 생산해

350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꽃감이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꽃감이 가진 타닌 성분은 니코틴 배출,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고 혈압과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다"며 "이처럼 산청꽃감의 우수성에 힘입어 꽃감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품질을 선도하는 산청꽃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온라인으로 찾아온다

작년부터 학술회의-산업전시회 중심으로 전환해 수출 마중물 역할 토크

연금술사 4차 산업혁명의 유망 기술인 나노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보게 될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이 19일부터 20일까지 나노피아 누리집을 통해 개최된다. 경상남도과 밀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올해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나노융합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온라인 개막식 온라인 전시회, 비대면 수출상담회, 나노인사이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회는 참여기관 단체 수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본 행사의 조직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외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도내·외 14개 나노융합기술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한국카본, 대호아이앤디, ㈜정관, 한국오츠카전자, ㈜창성 등 도내·외 51개 나노기업이 참여해 건축·의료·섬유·전자·광학 분야에 나노 소재, 소제, 공정장비 등 다양한 나노 기술 및 응용제품을 홍보한다. 수출

상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3개국 7개 해외의 구매자와 국내 기업 10여 개사 간의 사업 상담도 이뤄진다. 이번 수출 상담을 통해 구매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별도로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수출 양해각서 체결도 지원한다. 지난해 수출상담회에선 260만 달러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1부에서는 박종구 나노융합2020사업단장이 포스트 코로나의 나노정책에 대해, 2·3부에서는 김일두 연구소의 김일두 대표와 김상윤 이화여자대학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나노산업의 현황과 대응전략 등을 소개한다. 경남도는 2018년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이래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 등 나노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경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개최해온 본 행사를 지난해 국제학술회의 중심에서 산업 전시회 중심으로 전환해 나노융합산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나노피아를 통해 도민에게는 나노기술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제품 판매 및 사업화 기회로 나노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교류의 장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를 열게 됐지만, 오히려 행사기간 이후에도 국내·외 구매처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나노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돼 행사의 파급력은 더 클 것"이라며 "경남이 나노융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김, 전복, 대파, 울금

진도아리랑몰 | 검색 | 진도아리랑 |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남원시-전라북도-한국국토정보공사, 주생 주민과 토지주 한자리에 모이다.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3일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한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남원시, 전북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계자와 주생 주민, 사업부지 토지주 대상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에 들어올 'LX드론활용센터'는 주생비행장 부지와 인근 개인 소유 토지가 포함된 총 65,726㎡ 정도이며 주요시설은 드론 이착륙장, 활주로와 실내교육장, 드론관제센터 등이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센터가 운영되면 드론교육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문제와 사생활 침해로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

과 "남원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꼭 유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중 MOU 체결, 2022년 준공,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시 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업으로 많은 노력 끝에 남원시에 LX드론활용센터를 유치한 만큼 남원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주민과 토지주의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여러번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청취해 소음 문제와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 서울에서 개최

새만금 주요현안 논의와 열띤 토론

"새만금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과 적기 실행으로 전북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을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라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발제와 포럼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새만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가 있었다. 류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만료되며 20년 새만금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 작업

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혁명 등 정책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 일정과 따라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자문하기로 했다. 이어서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해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발제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 교수는 "미래도시에는 하이퍼루프,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드론 등 혁신적인 교통 수단이 등장해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드론을 위한 입체공중 이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려한 미래도시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도 정 교수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급변하는 기술변화 시대인 만큼 최신기술을 반영한 미래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 입체 공간구상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위원

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간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우병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주년을 맞이할 올해는 그동안 급변한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며 -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우미건설 **NEW** 지식산업센터
동탄 우미 뉴브 성공투자의 큰 이름!
공로 전화: 1577-0957 | 시공 전화: 1577-9687

곡성군, 문화예술로 빛날 새로운 모습 기대

올 연말까지 총 4억 들여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곡성군이 올 연말까지 총 4억원을 들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곡성 아트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곡성군이 주관한다. 곡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실현예술진과 위탁협약을 맺었다. 프로젝트에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비롯해 임근우, 문정규, 김석환, 변영환, 다음, 로즈박 등 장르별로 명성 있는 미술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곡성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전통시장, 강빛마을에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곡성레저문화센터를 중심으로는 LED 조명을 활용한 아트벤치 12점과 곡성 대표 캐릭터 레이조형물 등 4점의 조형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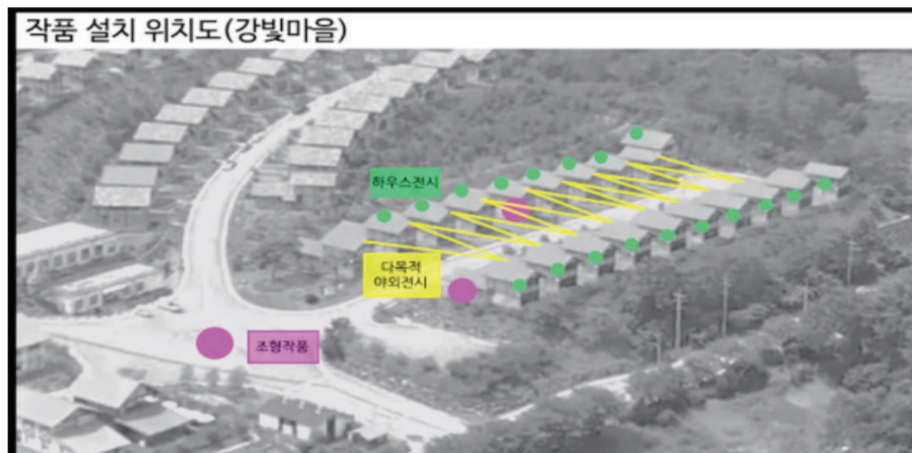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 국회 나선다

전라남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계획 반영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18일 전문가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국회에서 펼쳐질 토론회는 윤재갑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주최하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의 '국가기간교통망과 호남-제주 고속철도 구축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7명의 패널이 제주연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주도는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해마다 평균 50일 이상 결항되는 등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의 발이 묶이곤 했다. 때문에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이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지난 2007년 7월 전라남도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을 제안했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 분석이 0.78로 확인돼 경제성을 입증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지난 2017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도 0.894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경제출발 43조 원, 일자리 3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어질 경우 기상과 상관없이 이동체계가 안정돼 관광객과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된다. 또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수에 영향을 미쳐 관광산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고 현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당사자인 제주도의 입장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제주도민의 '들어 오다가 스레기만 남기고 떠나 버리면 우리 뭍 먹고 사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우선 완도까지 1단계를 추진하면서 철도만 깔린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 규모와 제주도 반대 해소를 위해 단계별 시행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설치된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간판에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설치된다. 작품에는 '나란히 흐른다'라는 주제로 전라선 기차길과 섬진강, 장미, 토란 등 곡성의 대표 상징물이 역동적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즉 곡면에 위치한 강빛마을에는 '마을, 미술을 입히다'라는 콘셉트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마법사 방, 장미하우스, 모환의 여인방, 돈벼락방, 구름물고기 방 등 19동의 건물에 테마가 있는 하우스갤러리가

세워진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조형선을 지그재그로 연결한다. 밤에는 별빛처럼 빛을 발하고 낮에는 깃발 미술 등 다양한 설치미술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형 조형물 등도 설치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백기 감독은 "프로젝트를 통해 곡성군이 청정곡성에서 문화곡성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물드는 청산도 단풍, 20일 절정

슬로길 9코스, 청산도 일주도로 3.2km 붉게 물들어

형형색색 화려하게 물들었던 단풍이 지고 있지만 완도 청산도는 11월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이라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의하면 전남 완도가 가장 늦고 완도에서도 청산도의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청산도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흑시 가을에 대한 목마름이 남아 있다면 청산도 여행을 추천한다.

청산도 단풍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진산리~국화리~지리~도정마을까지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걷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연출한다. 1년에 한번 볼 수 있는 섬 단풍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11월 21일 가을 단풍길 출사에 나선다. 청산도 단풍길이 조성된 배경도 흥미롭다. '어번기로 몹시 바쁜데 청산도 아낙네들이 육지로 단풍놀이를 떠나 섬에 남은 남정네들만 남아 불만이



쌍이면서 생각한 것이 단풍나무를 심자고 한 것이며 단풍길이 조성되고 나서는 아낙네들이 단풍놀이를 가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완도군에서는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단풍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풍길에 조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청산도는 사계절 매력적인 섬이며 분주한 일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단풍이 드는 청산도에 들러 심

신을 치유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제1호'로 공식 인증을 받은 청산도는 느리게 걸으며 경치를 즐기기에 최적이다. 슬로길은 주민들이 마을간 이동하는 길로 풍경에 취해 절로 걸음이 느려진다. 해 슬로길이라 이름 붙여졌다. 완도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동절기 기준 07시 첫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

양영욱기자

완주군, 지자체 최초로 농촌유학센터 건립

도시 아이들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자연생활 체험 기회

완주군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농촌유학센터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민간에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해왔지만 공공기관이 주도해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한 것은 최하다. 16일 완주군은 도농교류의 디딤돌이 될 농촌유학센터를 운주면에 건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재천 완주군의회장, 송지용 전북도의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 40여명이 참석해 농촌유학센터의 첫 배를 축하했다. 농촌유학센터는 학생들이 기숙사 형태의 센터에서 농촌유학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공간으로 도시의 아이들이 6개월 이

상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를 다니며 마을주민, 자연과 어울려 자연생활을 체험하는 곳이다. 특히 개소식에는 개소일에 맞춰 입소하는 유학생 2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 예산을 시작으로 2019년 지자체 최초로 국비 4억, 도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면서 운주농촌유학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전국에는 26개소, 전라북도에는 3개소의 센터가 있으며 모두 민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 중에 있다. 운주농촌유학센터는 총 15명의 초·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숙식을 하면서 농촌체험·인성교육·먹거리교육·생태교육캠프·여러이기자단·지역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또한 인근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실험·연구학교인 운주초등학교와 생

태체험을 통한 전환적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는 운주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농산어촌 여건과 환경에 맞춘 대안 교육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를 운영하는 이기열 운주농촌유학센터장은 "농촌유학센터에서 지역화·마을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도농교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이들이 농촌의 자연을 즐기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시골벽적인 웃음소리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며 "은 마을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성공적인 농촌유학센터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전주 곳곳에 평생학습 공간 생긴다

전주시가 청소년기과관 노인복지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17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지역 내 청소년·노인복지 기관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시가 청소년기과관, 노인복지관, 평화동마을신문, 남부시장 청년몰 등 다양한 기관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평생학습 기회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데 목

적이 있다. 협약 참여 기관은 덕진청소년문화의집 슬래시청소년수련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전주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평화동마을신문 금암노인복지관 꽃밭정리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분관 완산노인복지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협약기관들은 공간 및 전문 인력 협력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운영 평생학습 프

그램 및 행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들의 큰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학습공동체를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허태정 시장, 겨울철 코로나19재유행 대비 고강도 방역대응 주문

16일 주간업무회의서 충청권 메가시티 역할 주도, 사회갈등 조정 행정역할 등 강조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고강도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의 고비를 맞았지만 큰 확산을 막아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수도권은 물론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행에 대비한 고강도 방역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이 코로나 대응 생활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연말 회식 등 위험요인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중대고비라 생각하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이유로 떠오른 충청권 경제공동체 메가시티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는 광역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가 각 지역의 이익은 물론 전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 초 확정된 소재동 재개발사업을 행정이 관여해 사회갈등을 잘 해결한 사례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행정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개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했던 소재동 관사촌을 행정이 관여해 중재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사회갈등에 적극 개입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행정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충주시,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시민 호응 속 마무리

반려동물 양육 실천 정보 제공 및 1대1 방식 반려견 행동교정 등

충주시는 4주간에 걸쳐 운영된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 ‘행복하게, 달라질게’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 16일 밝혔다.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요일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전문강사의 강의로 반려동물 기본예절 및 건강관리법 등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실천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교정교육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주에 진행된 행동교정프로그램은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1대1 방식의 반려견 행동교정 과정을 통해 공격성, 분리불안 등 반려견들의 문제행동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받고 실습도 함께 이뤄져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한 참여자는 “평소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들과 보면 짖고 물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정을 받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지금은 낯선 사람이 옆에 와도 가만히 있다”며 “무료로 상담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교육은 충주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반려동물 돌봄문화교실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청 최대규모 녹색 실내공원 조성

1층 로비, 민원실, 기동 700㎡에 실내공기 정화식물 28,660본 심어



천안시청에 사계절 녹색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정원이 조성됐다. 천안시는 시청 1층 민원실과 로비와 민원실 등에

바닥에서 천정에 이르는 벽면에 공기정화식물을 심은 실내수직정원을 꾸며줬다고 16일 밝혔다. 수직정원이란 식물이나 다른 물성들이

수직의 벽면에서 자라거나 설치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정원으로 새로운 벽면녹화 트렌드다. 이곳은 서울시청 신관에 꾸며진 실내정원과 함께 전국적인 녹색건물 모델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천안시청 실내정원 조성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따른 국도비 10억원이 투입됐다. 시청 로비 벽면과 기동, 민원실, 휴게시설 등 전체 700㎡에 산호수·남천·스킨답서스 등 실내 공기정화 식물 10종 2만 8660본을 심어 식물원에 들어온 느낌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휴게 공간 앞 기동을 활용해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연출한 부분이다.

실제 나무껍질과 목대를 이용해 천안의 특산물인 호두와 호두나무를 형상화 했다. 녹화구간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당직실 벽면 248㎡ 규모에는 테이블야자 등 10종 1만 4000여본이 심어져 사계절실내습도절과 푸름을 선사한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은 입구 벽면과 안내데스크, 기동 등을 활용해 살아있는 이끼를 친환경적인 시공을 통해 공기정

화와 습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벽면 및 기동부는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시원하고 푸른 경관을 제공한다. 천안시청 실내정원은 1년 365일 관수, 조명 습도 등을 IoT를 통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점검하는 첨단 설비를 갖췄다.

안시는 지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내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림청, 국립수목원 등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벽면녹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천안시는 생활밀착형 숲·자연안심 그린숲·도시 바람길숲 같은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천안형 그린뉴딜 분야’ 생활권 숲·녹지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의 확장성과 시청사 주변의 시민의 숲과 시민 체육공원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시장은 “시청사 실내정원이 조성돼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치유와 건강성을 회복하고 희망과 힐링의 공간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속초시, 찾아가는 젠더토크 콘서트 개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실태와 지역사회 대응 방안 논의

속초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최, 속초시 주관으로 ‘찾아가는 젠더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속초시가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목표로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속초시장, 시의원, 공무원과 속초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권익증진시

설, 속초 YWCA, 속초 YMCA 등의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강연과 토크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 강연은 10대여성사이버 성착취 피해지원과 성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심내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유형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 역할과 대응을 위한 강연자와의 토크쇼와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속초시는 이날 논의되는 내용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협력해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보령시, 청년 스스로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한다.

청년공감 정책토론회 성료...우수 아이디어는 시책으로 추진

보령시는 지난 14일 보령베이스동백홀에서 청년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공감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는 소통의 자리로 청년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지역의 청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임미소 아산청년협동조합 그러 이사장의 ‘지역의 심장, 청년이 뛰다’, 김민조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이사의 ‘사회적경제와 청년이 만나다’ 특강을 시작으로 보령시 청년정책 소개, 그룹별 청년공감 정책발굴, 청년 정책토론회결과 발표 및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그룹별 토론회에서는 8개 그룹에서 모두 69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돼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투표를 통해 이중 20개 아이디어가 본선에 진출하고 최종 7건의 아이디어가 입상했다. 최우수 27표를 얻은 ‘홍성, 보령, 청양을 묶는 지역통합 공공의료원 개설’, 우수는 각각 26표와 17표를 얻은 ‘인적자원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 신설’ 및 ‘청년 농업인 공동 체능농장 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장려로는 프리랜서 지원사



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증대 청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대입 수험생을 위해 임시 전문가 초청 컨설팅 대중교통 어플지원을 통해 정확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이 선정됐다. 김동일 시장은 “오늘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현재와 미래 만세보령의 청년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밝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계룡시, 제12회 Good 계룡예술제 개최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예술의 장 기대

계룡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들의 축제 한마당이자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13회 충남·제12회 계룡예술제’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과 대공연장에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펼쳐진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들과 한국예총계룡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예술제는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충남예술문화와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남예술문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예술제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년 예술제는 계룡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예술제만 실내공연장에서 축소 개최하게 됐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장 중 좌석수의 50%만 입장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는 개막식,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4가지 테마와 각 테마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대표 예술제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관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참여형 예술제로 품격과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오대근 회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단체는 물론 예술인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예술제가 충남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은미 선수 격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꿈나무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의정부회룡초등학교 6학년 이은미 선수를 만나 격려했다.

이날 격려의 자리에는 이광호 감독, 조승현 코치를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장, 이강현 의정부시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미 선수는 지난 10월 23일 2020 꿈나무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46kg급에 출전해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2018 제40회 경기도태권도협회장기대회에서 1위, 2019년 경기도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1차 선발전 여자



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은미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초등부에서 1위, 2019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 라이트급 3위를 차지

故 정성희 열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잠들다

전두환 정권시절 이른바 “녹화사업”의 첫 번째 희생자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모가면 소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故 정성희 열사의 안장식이 진행됐다.

故 정성희 열사는 연세대 영독불계열 입학 후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힘써오다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게 됐다.

고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에도 대학 동기들의 동향을 알아오라는 정보당국의 지속적인 강요를 받아오다 1982년 7월 23일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18년이 되어서야 국방부 중



양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이 됐다. 한편故 정성희 열사가 안장된 민주공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공원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136명중 58명의 열사들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공

박상찬기자

담양대숲마루(주), 담양동초에 통학차량 지원금 2억원 전달

첨단문화복합단지 시행사인 담양대숲마루 김승태 대표이사과 양우건설 구태고 이사는 담양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업지 내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서 통학하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금을 전달했다. 담양대숲마루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담양군과 양우건설, 효림종합건설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김승태 대표는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전원생활을 만끽하며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잡기를 소망하며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성장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함양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 유기·무항생제 축산 최우수상 수상

친환경축산협회 주관 소가축 부문 최우수상 영예, 성실한 유기축산 실천가

함양군 함양읍에서 약초골농원을 운영하는 강구영 대표가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에서 주관한 ‘2020 유기·무항생제 축산대상 공모’에서 소가축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우수 유기·무항생제 축산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 실천의욕 고취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유기·무항생제 축산 실천 농가와 업체들의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축산물유통, 축산지제 등 총 5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약초골농원은 지리산 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삼봉산 중턱 해발 약700m 함양군 함양읍 상죽리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7년 전부터 시작한 산란계 700수로 유정란을 생산하고 친



환경 무항생제 인증과 더불어 친환경 농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강구영 대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닭과 계란을 살피며 더 나은 방향과 환경을 고민하면서 바른 먹거리와 닭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삼척시 오잉크팜 농장, “농식품 가공·체험 가업승계농 우수사례” 전국 2위 우수상 수상

삼척시가 2009년부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 중 한 곳인 여유로농업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오잉크팜 농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0 농식품 가공·체험 가업승계농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시도에서 1차 선발된 전국 14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촌자원사업 분야의 농·식품 가공 및 농촌체험 관련 창업사업장의 전문성 확보, 경영혁신 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성장 발전 가능성 등 심사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오잉크팜 농장”이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과 확산을 위해 1차 전문가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심사로 전국2위로 선정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오잉크팜 농장’ 박성훈 대표는 “2015년부터 부모님의 농업기술과 교육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차근차근 가업 승계 준비를 해 2020년부터 영농조합 대표로서 흑돼지 육가공과 수제 소시지 개발 및 체험농장을 운영해 다양한 판로개척과 상품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소규모 가족단위의 체험프로그램과 누구나 다양하게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예정이며 직접 사육한 흑돼지고기와 수



제소시지를 온라인 판매사업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품질 대에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이 삼척농업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H.O.T 페스티벌

2020

H.O.T 페스티벌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o.co.kr

문의전화

054-683-7300

노원구, 온라인에서 만나는 청소년 축제 '노출' 개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택트 진행 및 참가

서울 노원구가 18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11일 동안 제2회 노원구 청소년축제 '노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출은 "노원의 청소년이여, 진짜 나로서 출발하라"는 구호의 줄임말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청소년센터,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상계청소년문화의집, 네 개의 기관과 청소년 문화기획단인 '청취'가 협업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홍보, 운영까지 노원구 청소년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온택트 방식의 이번 청소년축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기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 대회인 '노출 라이더', 비대면 노래자랑인 '나들이 노래맛을 알아?'와 릴레이 댄스배틀 '릴레이 노랜출스' 세 가지 콘텐츠가 있다. 프로그램의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문화기획단 '청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막식은 18

일 저녁 10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참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축제 인트로와 축하 영상 등이 올라오는 것으로 진행된다. 먼저 e-스포츠타대회인 '노출 라이더'는 21일 오후 1시부터 개인전 16명과 팀전 4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온택트 노래자랑 '나들이 노래맛을 알아?'는 21일부터 7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참가 영상들이 올라오며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 릴레이 댄스배틀 '릴레이 노랜출스'도 21일부터 6일간 공개된 영상에 투표할 수 있으며 28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작년 제1회 노원구 청소년축제 '노출'은 노원구청 지하주차장과 2층 대강당, 구청장실 등을 '복고'를 콘셉트로 부스운영과 2부 청소년공영으로 총 5,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등 노원구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얻었다.



축제에 협업 중인 4개 청소년수련시설 센터장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대면 축제의 불안함이 있을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온택트 방식을 채택해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의 안전과 참여를 모두 보장할 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

원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만들고 진행되는 축제이니만큼 이번 축제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루체심포니오케스트라 하모니 콘서트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오후홀에서 '루체심포니오케스트라 하모니 콘서트' 공연을 진행한다. 루체심포니오케스트라는 실력과 지휘자 김형석이 이끌며 어려운 클래식을 좀 더 쉽게 재해석해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대중들이 평소에 선호하는 클래식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재미있는 해설과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의 히로인으로 뮤지컬계 디바 최정원, 세계 오페라무대의 최정상 성악가이며 최고의 음악성과 소리를 가진 테너 하석배, 관객의 마음을 제대로 훔치는 진정한 실력의 소유자 소프라노 이윤경의 출연으로 수준 있는 하모니 콘서트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루체심포니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콘서트'는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관람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확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송파구,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 뮤지컬" 무료 상영

청소년들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하고 생명의 소중함 알리는 기회

송파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예방 비대면 뮤지컬 공연'을 상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약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만 2463명 이던 자살자수는 2018년 1만 3,670명, 2019년 1만 3,799명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은 '코로나블루'로 인해 자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명존중'과 '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송파구 보건소는 '동화가 꽃피는 나무 기획사'와 협의해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하트비트' 뮤지컬 공연을 비대면 상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영하는 뮤지컬 '하트비트'는 새 학기가 시작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학교폭력 및 자살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타악과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풀어낸다. 난타 공연을 가미하고 10곡 이상의 노래와 어우러지는 뮤지컬 퍼포



먼스로 듣고 보는 재미는 물론, 교육적인 가치와 함께 감동을 선사한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2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공연 상영을 진행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뮤지컬 공연을 통해 심리적으로 큰 과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대전시립무용단, 거장을 만나다

시립무용단 11월 21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서 '감독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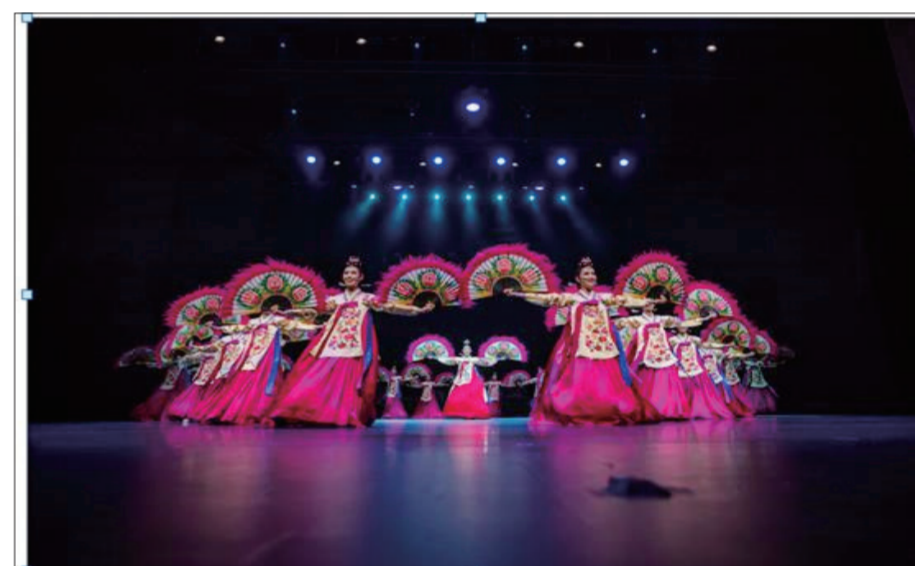
대전시립무용단 기획공연 II '감독展'이 오는 21일 오후 5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이번 '감독展'은 '거장을 만나다'를 부제로 국·공립 전 예술감독을 초청해 명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대전시립무용단 초대 예술감독 김란, 제4대 예술감독 김매자,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배정혜, 국수호 명인들이 출연한다.

초대 예술감독 김란은 고 김숙자 선생님께서 재탄생한 김란류 살풀이를 대전시립무용단과 함께 선보인다. 단아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그만의 춤을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대전시립무용단 제4대 예술감독이자 현재 '창무회' 이사장인 김매자가 선보이는 'Shinning Light'는 '창무'를 하두로 무용 창작에 몰두하고 한 국무용을 세계에 알리고자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약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한국창작 춤이다. 한국 대표 여린 이 예술단인 리틀엔젤스예술단 예술



감독 배정혜는 '연산조'를 선보인다. 아쟁,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합주의 산조음악에 맞춰 배정혜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춤사위로 풀어낸 산조춤이다.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국수호가 선보일 '금무'는 그의 춤 인생 50년에 초연된 작품으로 한국인의 오천년 동안 숙성되어진 내재적 감성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관조의 몸짓을 볼 수 있는 춤이다.

또한 네 명의 명인이 사사한 살풀이, 남무, 부채춤, 춤 그 신명 작품을 대전시립무용단이 선보여 스승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춤의 동행을 감상

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이번 공연부터 다시 객석 전체가 정상 운영된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공연장 지침을 준수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취학아동 이상 입장가능하며 S석 1만원, A석 5,000원으로 대전시립무용단, 인터파크, 아르스노바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아르스노바에서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세종시문화재단 12월 기획공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콘서트' 선보여

티켓예매 11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스24에서 진행

세종시문화재단은 K-흥 열풍의 주역,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바디콘서트'를 다음 달 16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디콘서트'는 가요, 민요, 팝, 클래식, 일렉트로닉 뮤직까지 우리 귀에 익숙한 다양한 음악을 음원으로 사용해 현대무용, 스트리트댄스, 발레, 일상행위와 놀이 등을 넘나드는 춤 사위를 70분 간 쉴 새 없이 보여주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대표 작품이다. 또한 이 공연은 2014년과 2019년에 한국춤비평가협회로부터 한국춤비평가상 '작품상'과 '베스트 작품상'을 수상한 수작이기도 하다.

특히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에 출연해 유튜브 조회수 1억 3천 만뷰를 돌파하는 큰 사랑을 받으며 'K-흥' 열풍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중을 대표이사는 "무용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어깨를 들쩍일 수 있는 공연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리듬으로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티켓 예매는 11월 16일 9시부터 예스24



를 통해 가능하며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람인원을 360석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상황이 변화되면 공연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시 재단 누리집 및 문자 등을 통

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 작품으로 사업비의 일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최재은/기자

안성맞춤아트홀 개관 3주년 기념 공연 '라 트라비아타' 성료

타지방 공연과는 차별성을 둔 그랜드오페라로 성황리 개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은 개관 3주년 기념 공연으로 국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였다.

안성맞춤아트홀이 기획하고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한 '라 트라비아타'는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대표작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유럽 귀족사회의 고급 장녀인 비올레타와 시골 출신의 재

력가 알프레도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인 '라 트라비아타'는 세계 4대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안성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지방 공연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랜드오페라로 진행됐다.

스토리 생략 없이 전 3막으로 구성했으며 19세기 파리 사교계의 화려함을 극대화한 1톤짜리 상들리에가 설치됐다. 비운의 여주인공 비올레타 역에는 국립오페라단과 한국오페라 70주년 공연에서 활동해온 소프라노 윤상아, 그녀를 사랑한 알프레도 역은 이탈리아 파르마 왕립극장과 우디네 극장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 중인 이범주가 맡았으며 연출은 2014년 프랑스 연출가 아르노 베르나르가 제작한 버전에 한국 연출가 이의주의 참신함이 더해져 농밀한 화려함과 절제된 우아함을 선보였다.

안성맞춤아트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많은 애정을 주신 안성시민에게 감사드리며 안성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안성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의정부시, 공기업 윤리인권 경영체제 구축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공기업의 선량하고 모범적인 기업 경영과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맑은물사업소 자체 공기업 윤리인권 경영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체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 권의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 위한 윤리인권 경영체제 구축 맑은물사업소는 공공분야 갑질 행위, 성범죄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전 직원의 자생적인 노력을 위해 4대 분야 상벌제 등 비윤리적 행위 방지 노력, 윤리인권 경영 및 부패 방지 예방 노력, 고객 권의 증진, 자율적 내부 통제 구축, 갑질 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으로 주요 분야별 세부 과제별 공기업 윤리경영을 위해 적극 이행한다.

또한, 상시 투명한 회계 처리, 요금 부과징수 및 납부 편의 증진 도모, 상수도 누수·상습 침수피해 등 주민 불편사항 신속 처리, 상·하수도 민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불만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 발굴, 공무직 근로자 보

호지침 및 공정 계약 준수, 신규 임용자 업무 적응 등을 위한 담당팀장 멘토 운영, 부서별 국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갑질 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하수도 요금 ARS 시스템 개선 이번 달 1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ARS를 이용해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ARS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어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요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 간담 e납부, 인터넷, 자동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우

선적으로 관내업체와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계약체결부터 선금, 기성금, 완수금 지급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0월 현재 573건의 계약관리 중 관내업체 계약체결률은 66.3%에 달한다. 또한 철저한 원가계산 검토 및 정산, 정기적 계약이행상황에 대한 검토, 연 2회 하자검사를 추진하고 특히 하도급 지급이 운영을 통해 임금 체불 없는 대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체결된 계약의 금액, 계약일자, 계약방법 등의 관련 정보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기업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공기업의 윤리인권 경영체제를 구축해 불공정, 부패방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 권의 증진을 위해 사업소 자체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상·하수도 분야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관리역량 제고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 환경개선 사업 추진

거리가게 개선, 지중화 사업, 가로녹지 조성 등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

관악구 남부순환로 주변 일대가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가게 개선, 전력선 지중화 사업, 가로녹지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전력선·서울대입구역 주변 무허가 노점이 정돈되고 거리와 조화를 이룬 거리가게로 싹 변신했다.

지난 5월 신림역 일대 21개소, 9월에 서울대입구역 일대 19개소, 올해 총 거리가게 40개소의 판매대 교체와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거리가게 개선과 함께 주변 낡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 안전펜스 설치, 화단 및 나무 식재 등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 보행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구는 주민, 노점상, 상

인들의 상생과 협력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모범을 제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거리가게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며 “거리가게 상인과 지역 상인, 시민들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구 주요 간선도로인 관악로 구간 동·서측 2.22km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총 173억원을 투입해 보행 지장물인 전신주·통신주 지중화, 안내판 이전 및 교체, 보도 전 구간 정비를 진행한다. 서측 구간은 오는 11월말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며 동측 구간은 올해 말까지 관로매설 공사 및 보도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부순환로 약 5km 구간, 관악로 약 3km 구간에 기존 중앙분리대와 가로변의 부족한 수목식재를 채우고 플랜터를 설치하는 등 주

민들이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햇플’로 떠오른 서울대입구역 주변 사로수길에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다.

야간에는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LED조명과 3D 홀로그램조명 연출로 관악구의 혁신과 변화하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구는 홍보 조형물, LED 바닥 조명 등 다양한 컨셉의 볼거리를 추가 제공해 사로수길을 골목상권의 활력이 넘치는 서울의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노후화된 거리가게 개선, 무질서한 가로환경 개선, 가로녹지 사업 등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보행환경 조성 관리로 통해 거리의 작은 공간 하나까지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는 청정살터 관악,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더불어 경제 관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모범노동자·기업인 등 10명 산업평화상 수상

부산시는 내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8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 권익향상과 고용 창출, 노사분규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과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등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먼저 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이윤훈 부산항운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과 김석득 KT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위원장 윤각열 대

한제강노동조합 위원장 송정찬 (해양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상생과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기업인 부문에는 임진규 (㈜광성계축기 대표이사 오상훈 (㈜정현전기기술 대표이사 구중민 (㈜정호냉동 대표이사 김귀동 (㈜포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노사화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로자 부문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김태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김성기 부산연계경찰서 경위가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되며 특히 모범노동자는 3년간 광안대교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혜택도 받는다.

변성만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노사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서 부산의 저력과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더 감사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영등포구, 국제 의료관광 포럼 개최

오는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국제 의료관광 포럼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2020 영등포 국제 의료관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의 의료관광 시장 대비하는 영등포구의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코로나19로 세계 의료관광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 산업의 전망을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성애병원 장석일 의원장을 좌장으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등포구 의료관광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의료기관의 전략 영등포구의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행신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단장, 차정화 성애병원 진료협력센터 부장, 영등포구 비전협력과 노상욱 과장이 발표를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진기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외 초청 연사들이 화상 회의 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료관광 목적적 경쟁력 제고 방안 스토리텔링을 통한 메디컬 브랜드 마케팅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즈니 매직 적용방안 코로나 시대의 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개최 방식과 비대면 온라인 개최 형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을 취한다.

18일 오프라인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포럼 종료 후 12월 2일부터 구 유튜브 채널 ‘영구네’에 녹화 영상이 공개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의료관광산업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K-방역’, ‘K-의료’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한국 의료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의료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 채용 정보와 채용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을 만날 예정이다. 윗태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우리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 사명감 및 열정,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서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맞춤형 컨설팅, 채용 면접 등을 실시한다.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통해 각 기구의 인사정책, 채용정보 등을 소개하고 심층세션에서 참가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거나 채용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서 올해에는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총 84건에 대한 채용 면접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

은행은 이번 채용 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들을 선발해 내년 중 채용 예정이며 기타 국제금융기구들도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 한국인 직원들이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조언도 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사용될 국제금융기구 채용 홈페이지와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찬기자



안성 공도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11월 18일 건본주택개관!

18일, 쌍용건설은 경기 안성시에 공급하는 안성 공도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의 건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관람을 예약제로 운영한다. 방문 예약은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안성 공도와 평택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에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주목 받아온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오는 11월 27일(금)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12월 1일(화) 특별공급, 2일(수) 1순위 해당지역, 3일(목) 1순위 기타지역, 4일(금)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0일(목)에 당첨자 발표를 하며, 정당계약은 21일(월)~25일

(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안성 공도 승두리 73번지 일원에 자리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696세대, 아파트 14개동 규모로 안성 최고층 단지이자 매머드급 대단지로 지어진다. 타입별 세대수는 59㎡ 548세대, 74A㎡ 358세대, 74B㎡ 351세대, 84A㎡ 429세대, 129㎡

-PENT 2세대, 141㎡ -PENT 8세대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안성시 최고 35층, 1,696세대 대단지로 조성되며, 더 플래티넘 특화설계까지 적용되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스타필드 안성점이 오픈한 것은 물론, 교통, 학군 등 우수한 입지여건

까지 갖췄기 때문에 청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성 공도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탁월한 조망권 및 일조권을 자랑한다. 남향 위주 배치에 4Bay 위주의 설계가 적용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미스트분수, 에어셸터, 키즈엔맘스테이션 등의 미세먼지 저감 설계, 주차유도시스템,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만큼 입주민들은 쌍용건설의 차별화된 설계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버튼 접촉 없이 스마트키나 스마트폰으로 1층 공동현관을 지나 거주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까지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코로나 시

대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단지 내로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조경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승두천 수변공원(예정)까지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쌍용건설은 루프탑 가든, 케렌시아 카페, 글램파크, 여름철 물놀이 가능한 테마놀이터 플레이파크, 약 1.5km의 칼로리트랙, 반려동물 놀이터인 펫가든,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멀티인도어짐, 게스트하우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품 경쟁력 뿐 아니라 입지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안성과 평택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통해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지난달 오픈한 스타필드 안성점이 가까이에 위치하여, 쇼핑, 문화 생활과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고, 공도 초등학교가 가까워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중·고교도 1km 내에 위치한 안성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성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호재의 수혜도 기대된다. 우선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서울~세종고속도로 서울~안성 구간이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안성을 통과하는 평택~부발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년~2025년)에 최종 반영된 바 있다. 해당 계

획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향후 안성 지역 교통망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감을 더한다. 이 외에도 안성테크노밸리, 알파산업허브센터,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등 (산업단지)조성 (필) 예정으로 향후 미래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안성 공도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의 자세한 청약 일정 및 단지 세부내용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

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7-9번지에 위치해 있다.

(건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할 예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김남주/기자

